익산 농산물 '판로 확대'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 총 260억원 집중 투자
푸드플랜·통합마케팅·기업맞춤형 수요 반영 판로 확대

익산시가 지역 명품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1천억원 규모의 매출 달성에 도전한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농가 매출 증대를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과 통합마케팅, 기업 맞춤형 수요 확대에 총 26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각종 지원으로 ▲로컬푸드·학교급식 등 푸드플랜 활성화 130억원, ▲통합마케팅 450억원, ▲기업맞춤형 수요 확대에 420억원 등 익산 명품농산물을 통한 총 1천억원 규모의 매출이 기대된다.

익산시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과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푸드플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푸드통합지원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푸드플랜 사업과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학교·공공급식 등을 위해 223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농가 조직화는 물론 생산·유통·소비 연계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서부권 로컬푸드)은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운영 이후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해 소비자 신뢰 제고에 주력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익산시가 규모화된 통합마케팅을 통해 탑마루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내외 신시장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형 일자리 사업… 기술인력 양성 결실 시작

전기차 클러스터 핵심인재 양성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시작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경남 함양공장에서 전기버스 및 CNG 버스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 협약기업 에디슨모터스(주)의 군산공장 준공이 머지않았다. 군산공장에서는 전북도민을 채용하여 오는 8월부터는 중형전기버스 및 전기트럭과 특수차량 양산을 계획 중이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산업위기의 극복과 지역경제 체질 강화를 위하여 지역거점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은 에디슨모터스(주)와 우선채용 약정과정을 협의하고, 지난 3월부터 300시간(2021.3.16. ~5.14)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기업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경남 함양 본사 현장학습, 에디슨모터스(주) 군산공장 관리자의 직무 맞춤형 실습 교육으로 실제 현장 적응 능력을 배양하였다.

또한 20년이 넘는 기술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교육생 평가관리 및 상담 시스템으로, 이번 에디슨모터스(주) 신규 채용 인원 중 전북인력개발원의 맞춤 교육훈련 및 전기차 전문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 과정생의 채용 신뢰도를 바탕으로 에디슨모터스(주)는 전북인력개발원과 함께 7월부터는 산학연계 신입사원 직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는 강소개발특구단지, 전기차 클러스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실증테스트베드, 새만금 주행시험장 등 모빌리티 산업 기반 구축과 더불어 연관 기업들의 입주로 기술인력 수요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지역거점 직업훈련기관인 전북인력개발원의 모빌리티 교육시설 기반 확충과 전문 강사 확보,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계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지역 청년 인재의 도외 유출 방지 및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근로청년 '통장과 수당' 쌍두마차 지원

익산시가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자산형성통장'과 '익산형근로청년수당' 쌍두마차 지원을 본격화한다.

먼저 청년자산형성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적립하면 동일 금액의 자립 지원금을 익산시가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청년 저축액의 2배와 이자를 지급하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 청년자산형성통장지원사업을 신청한 333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조회를 거쳐 지난달 말 106명의 대상자를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은 올해 3년차로, 2019년~2020년 가입자를 포함하여 총 304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신규사업인 익산형근로청년수당은 익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청년들 중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해 매달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초 익산형근로청년수당 대상자를 모집하여 850여명이 신청했고 유사지원사업 중복조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통장과 익산형근로청년수당은 상호 보완적인 제도로서 지원내용과 범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청년들이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자산형성통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갖추면, 익산에 사업장을 둔 사업소득자 및 농축산업소득자까지 폭넓게 참여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자임을 알리는 '인증 배지'를 배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백신접종 '인증배지' 배부

1차이상 예방접종 완료한 만50세 이상 시민에 제공

군산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자임을 알리는 '인증 배지'를 배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배지는 1차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50세 이상 시민이면 5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등 접종받은 기관에서 인증배지 수령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인증배지는 접종을 직접적으로 증빙하는 기능은 없으나 7월부터 접종자 야외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돼 시민들이 산책, 야외 운동 시 간접 증빙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접종에 참여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희망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예방접종 인증배지 제공과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들로 많은 시민이 백신접종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시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과 백신접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증명서 앱(COOV)을 활용해 백신접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3가지 색깔로 구석구석 즐기는 관광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스탬프투어, 포토투어, 시티투어버스 등 3가지 색깔의 맞춤형 관광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3색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관광지를 따라 여행하며 군산의 기억과 추억을 담아가는 감성여행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소규모 단위 개별관광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2020년 국민이 가장 많이 찾은 국내 여행지로 선유도가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에는 선유도와 방축도가 선정됐다.

군산의 고군산 섬 관광, 근대문화 시간여행, 은파호수 자연생태 탐방 등 관광지가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걸맞는 장소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3색 관광 프로그램은 크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스탬프투어는 5개 코스 46개소의 관광명소를 도장을 찍고 둘러보는 투어로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만4천 명이 넘게 참여한 군산 대표 관광 프로그램이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으로 참여자가 줄었지만, 신규 코스 발굴과 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포토투어는 주요 관광명소와 SNS를 결합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7월부터 운영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민 의견 수렴

익산시가 지역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

시는 오는 7일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온·오프라인 방식의 시민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공단 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정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13개 사업 중 최종 확정된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사항과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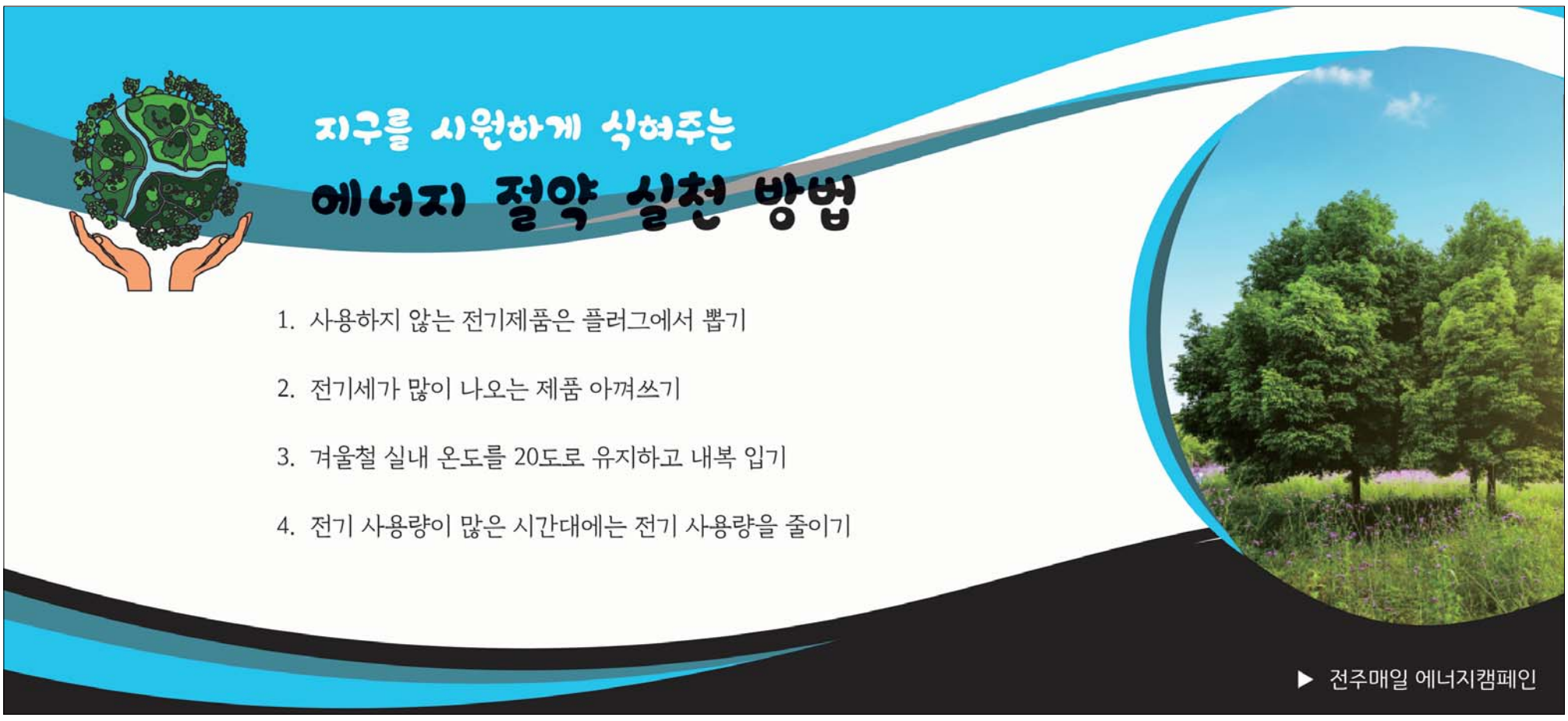
이어 타 지자체 공단 운영사례 청취 후 질의응답,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날 공청회 참가자는 현장 등록이 아닌 유선을 통한 선착순 사전접수를 통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다. /김재훈기자

군산시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 신청·접수

군산시는 제59회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군산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한 시민을 선발해 '군산시 시민의 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상부문은 총 9개로 문화예술체육장, 애향봉사장, 산업장, 노동장, 효열장, 시민안전장, 보건환경장, 교육장, 농림수산장이다. 수상자격은 군산시 거주자나 출신자로 해당분야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선발하게 된다.

후보자는 각급기관장, 기업체장, 사회단체장, 대학교 총장 등의 추천 및 시민 연서(30명)을 받아 추천서 및 공적조서,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해 오는 8월 3일까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시정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접수에 필요한 양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거나 행정지원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